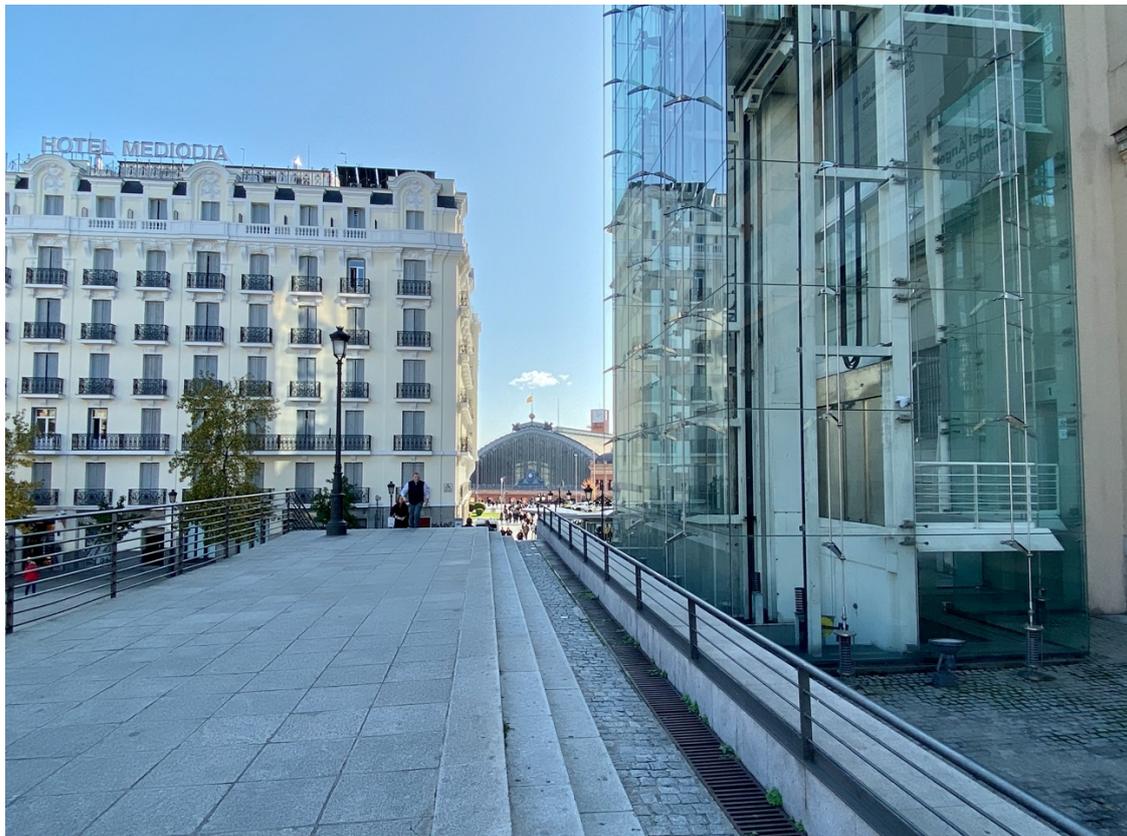


7. 맑고 청명한 마드리드 시내 산책(2019.11.8)

제목 1: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서 다시 만난 피카소, 달리, 미로

아토차 역 건너편에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이 있다. 오전 10시 개장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다가 입장했다. 시간이 이른지 관람객이 많지 않아서 쾌적하게 전시장을 이동할 수 있었다. 그림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지만 마드리드에 살 때 이 미술관을 여러 번 방문했다.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는 스페인의 거장 화가들인 피카소, 달리, 미로의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들이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을 유명하게 한 셈이다.

피카소의 게르니카(Guernika)는 2층에 전시되어 있는데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서 반출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이 그림을 보고자 하는 그림 애호가들은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을 꼭 방문해야 한다. 그리고 미로의 알듯 모를 듯한 단순한 그림, 달리의 나른한 느낌을 주는 그림들이 방문객들의 눈길을 끈다.

나도 그렇지만 그림에 큰 관심이 없는 아내도 열심히 보고 다닌다. 신기한 일이다. 과거에는 미술관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기다렸다. 어찌면 이제 마드리드에 다시 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라는 생각 때문에 그럴 것이다.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을 나오며 문득 본 내부 정원이 가을 빛이다. 너무 아름답

다. 문을 열고 나가서 정원 사진을 몇 컷 찍었다.



제목 2: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왕립 식물원 그리고 레티로 공원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을 나와 왕립 식물원과 레티로 공원을 도보로 이동한다. 청명한 가을 날씨와 맑은 햇살이 무척 정겹다. 차지만 코끝을 상큼하게 해주는 공기도 상쾌하다.

길가 풍경은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게 해준다. 바쁠 것도 없기 때문에 느린 걸음으로 산책한다. 아내는 자꾸 손을 잡는다. 나도 모른 척하고 손을 맡기고 걷는다. 마드리드 와서 남편 잃어 버리면 안되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 같다. 아니면 아내의 유대감을 표시하는 걸까? 손을 잡고 다니는 것도 평생 훈련이 필요하다. 어느 날 갑자기 안된다.

마드리드에서 2년 살았음에도 이 두 곳은 한 번도 와보지 못했다. 관심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던 탓이다. 식물원은 일본식 정원같이 잘 정리되어 있다기 보다는 일단 어수선했다 보인다.

그러나 아주 자연스럽고 생태계가 잘 존중되어 있다. 가을이 조용하게 깊어가고 있다. 차가운 공기 속 햇살도 따뜻하고 상쾌하다.



도심 속 식물원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안으로 들어오니 적막할 정도로 조용하다. 또 넓기도 하지만 각종 식물이 잘 어울려져 있어 인공적으로 가꾼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보이지 않게 다 손이 가 있다.



식물원 모퉁이에 있는 기념품 가게 내 카페의 엑스프레소와 호두를 갈아 넣어 만

든 비즈코초가 일품이다.



레티로 공원으로 이동한다. 매우 넓은 공원을 이리 저리 옮겨 다니며 산책한다. 조용한 산책길이 매우 만족스럽다. 노란 낙엽들이 떨어져 있다. 지난 얘기, 자식들 얘기를 나눈다.





알폰소 12세 기념 조형물 앞으로 조성된 호수에 마드리드 사람들이 노 젓는 보트를 타는 풍경이 매우 평화스럽다.



아내가 배가 고프다고 한다. 나는 공원을 나가서 식당을 찾아 먹자고 했지만 아내는 호수 옆 카페 식당 메뉴 사진을 보니까 맛이 있겠다며 여기서 먹자고 한다.

가격은 비싸고 음식의 질이 너무나도 형편 없었다. 돈을 강탈당한 느낌이 들 정도로 불쾌하다. 아내도 너무 했다고 한다. 자기가 우겨 먹었으니 말은 못하고 화가 나 있다. 마드리드에서 이런 일도 있다.

제목 3: 베르나베우 레알 마드리드 축구장 내 푸에르타 57 에서 만찬

저녁은 레알 마드리드 전용 축구장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스타디움 내 푸에르타 57(Puerta 57)에서 식사를 했다. 해산물 전문 식당이다. 내가 이 곳에서 살 때는 없었다. 레알 마드리드 구장을 내려다 보며 식사를 할 수 있는 명소이다. 음식도 매우 훌륭하다. 해산물 타파스와 하몬 이베리코로 전식을 먹은 후 분식으로 나온 국물이 많은 파에야 콘 보가반테는 아주 맛이 있었다.

